최연의 산 이야기 <29> 가야산(경남) 3



가야산 정상인 상왕봉.

가야산 암자마다 고승대덕의 자취가 가득하구나

가야산(伽倻山)의 도량 터 중에 가장 수려한 기운이 서려 있는 곳이 백련암(白蓮庵) 터이다.

가야산 정상에서 남쪽으로 흘러내린 산줄기 하나가 해인사의 주산(主山)을 빚어 올리고 다시 동남쪽으로 향하며 몇 번의 용트림을 한 후 남은 기운을 모두 모아 용각대(龍角臺), 신선대(神仙臺), 절상대(絶相臺), 환적대(幻寂臺) 등의 수려한 바위봉우리들을 솟아 올리고 그 아래에 수도(修道) 터를 하나 마련했는데 그곳이 백련암이다.

앞은 걸림이 없이 확 트여 가야산에서 매화산까지 반원형(半圓形)으로 휘어도는 가야산 주맥(主脈)이 한눈에 들어온다. 백련암의 주산은 학(鶴)의 형상을 하고 있는데 학이 막 날개를 접으며 둥지에 앉는 모습이다. 그러므로 백련암 터는 학의 둥지 즉 학소형(鶴巢形)이다.

학소형의 터에는 성품이 고매하고 도(道)가 높은 인물을 배출하는데 그 명성에 걸맞게 많은 고승대덕들이 이곳을 다녀갔다. 조선시대의 소암(昭庵), 환적(幻寂), 풍계(楓溪) 스님 등이 오래 주석했다.

소암 스님은 서산대사의 제자로 임진왜란 때 왜군들이 스님의 명성을 듣고 감히 가야산을 침범하지 못하였다고 전해지고 있다. 환적 스님은 환적대(幻寂臺)에 토굴을 짓고 수행정진하며 호랑이 한 마리와 친하게 지내면서 호랑이를 타고 가야산을 오르내렸는데, 어느 날 그 호랑이가 사람을 해치는 바람에 산신(山神)에게 부탁해 호랑이들을 다시는 가야산에 들지 못하게 하였다고 한다.

백련암을 향하다가 왼편으로 갈라져 올라가면 희랑대(希郎臺)와 지족암(知足庵)이 보인다. 이곳은 희랑대사(希郎大師)가 수행하던 곳으로 희랑대에서는 참선(參禪)을, 지족암에서는 기도(祈禱)를 주로 했다고 한다. 희랑대의 주변 산세는 흡사 게가 엎드린 모양의 해복형(蟹伏形)이다. 게는 둘이 만나면 싸움을 하기 때문에 희랑대에서는 꼭 한사람만 살아야 한다고 한다.

희랑대에 희랑대사가 머물고 있을 때 해인사에는 관혜스님이 주석하고 계셨다. 희랑대사는 가야산 해인사 출신이고 관혜 스님은 지리산 화엄사 출신으로 부석사에서 공부할 때 한 스승 아래서 수학(修學)한 사형사제의 관계였다. 그런데 희랑대사는 왕건을, 관혜 스님은 견훤을 지원했다. 두 화엄학(華嚴學)의 대가가 지지하는 정치세력이 달라지는 바람에 화엄종(華嚴宗)은 결국 희랑의 북악(北岳:가야산)과 관혜의 남악(南岳:지리산)의 두 분파로 갈라져 반목과 갈등이 그 후로 오래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

고려 때 혁련정(赫連挺)이 찬술한 균여대사(均如大師)의 전기(傳記)인 <대화엄수좌원통양중대사균여전(大華嚴首座圓通兩重大師均如傳)>에 "스님은 북악(北岳)의 법손(法孫)이다. 옛적 신라 말기에 가야산 해인사에 화엄종의 종장(宗匠)이 두 분 있었는데, 한 분은 관혜 스님으로 후백제 거두 견훤(甄萱)의 복전(福田)이었고, 다른 한 분은 희랑 스님으로 우리 태조대왕(太祖大王)의 복전이었다. (중략) 당시 사람들이 일컫기를 관혜 스님의 문파를 남악이라 했고 희랑 스님의 문파를 북악이라 했다"는 구절이 나온다.

이때 희랑대사와 왕건의 만남이 <가야산해인사고적(伽倻山海印寺古蹟)>에 신비스럽게 묘사되어 전해지는데, 아무튼 희랑대사가 왕건을 도와 고려의 건국에 기여함으로써 태조는 그 보답으로 토지 500결을 해인사에 헌납하여 절을 크게 중창시켰다고 한다.

해인사와 개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는 홍제암(弘濟庵)은 사명대사(四溟大師)가 열반에 든 곳이다. 전란(戰亂)에 지친 사명대사는 가야산을 찾아들었다. 사명대사는 왜 가야산을 자신의 열반(涅槃) 장소로 택했을까?

서산대사(西山大師)가 당신의 의발(衣鉢)을 두륜산(頭輪山)에 보내 법을 전했듯이 사명대사도 가야산에서 육신을 살라 당신의 법을 심고 간 것은 아닐까?

서산대사의 의발을 전해 받은 두륜산 대둔사(大屯寺)가 조선 후기의 불교사를 찬란하게 빛냈듯이 사명대사 열반 이후 가야산 해인사도 호암체정(虎巖體淨), 해봉유기(海峯有璣), 설파상언(雪坡尙彦), 연담유일(蓮潭有一) 등 구도정신을 크게 꽃피운 수행자들이 많이 주석했다. 특히 호암과 연담은 대둔사 13종사(宗師)에도 꼽히는 스님들이니 해인사와 대둔사의 인연도 서산대사와 사명대사의 인연처럼 각별하다 아니할 수 없다.

허균은 사명대사를 기리는 비석 글에 다음과 같이 적어 놓았다. "제자들이 해인사 서편 산기슭에서 스님의 유해를 다비할 때에 상서로운 빛이 하늘에 뻗치고 새들이 놀라 지저귀었다."

일제 침략기에는 3.1독립선언 33인 중의 한 분인 백용성 스님도 해인사 출신이다. 용성 스님은 16살에 해인사 극락암에서 머리를 깎았고, 3.1독립운동 때에는 잡혀가서 문초를 당하면서도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주어지면 또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하며 헌걸찬 기상을 보여줬다.

3년 옥고를 치른 뒤 북간도(北間島) 용정(龍井)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며 산을 개간하여 화과원(華果園)이라는 농장을 만들어 선농일치(禪農一致)운동도 벌였다. 그리고 <화엄경> 80권을 한글로 번역하는 불경의 국역사업(國譯事業)에도 크게 기여했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호수의 가을

"나그네 쉼터까지 내려왔다가 집으로 올라가면 하루가 지나가요."
"요즘도 술은 여전하고?"
"흐흐, 쉼터에서 가끔 소주 한 병씩 비우죠."

버스가 오가는 대로변에 강을 바라보며 자리를 잡은 쉼터를 뒤로 하고 얼큰하게 달아오르는 몸을 허적허적 흔들며 다리를 건너 강변을 따라 산길을 타고 집으로 올라가는 호수의 모습이 어렵지 않게 잡혔다. 그가 사는 가재골은 강변을 따라 솟아있는 산의 옆구리를 깎아내 만든 산길을 타고가다 접어드는 골짜기다. 다리가 놓여지기까지는 산을 넘어 다녔다고 하는데 육이오 전쟁이 터졌을 때는 다 끝난 뒤에야 주민들이 알았다고 한다.

폭이 좁은 골짜기라 해도 포장도로가 깔려있어 외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 둘 늘어 가는 지역이다. 들어온 사람들이 집을 짓는 곳에 찾아가 도와주기도 하고 마을 얘기도 들려주면서 주인이 따라주는 술을 먹다보면 시간은 헐겁기도 해서 호수의 하루는 이래저래 뚝딱 지나간다.

그는 초등학교를 마치고 집을 떠나 이발소에서 손님 머리 씻겨주는 일로 사회생활을 시작해, 안양에서 개수대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다시 시골로 들어왔다. 벌어놓은 천만 원도 어머니 병원비로 다 나가고 함께 살던 형도 사고로 죽은 뒤, 홀어머니 옆에서 그럭저럭 나이를 먹다보니 사십 대 중반에 이르렀다. 이젠 무엇을 더 어찌할 생각도 없다.

앞니도 몇 개 빠지고 얼굴에 주름은 또 왜 그렇게 느는지, 마음이 허허로운 날들이 이어져 마을길을 따라 골짜기라도 빠져나갔다가 와야 그나마 하루가 온전히 지나간다. 골짜기 밖의 강가로 내려오면 외부와 연결되는 다리가 누워 있다. 외지 생활을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찾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 다리 위에서 돌려세워 보냈으나 마음까지 끊지는 못했는지, 15년이 지난 지금도 가슴이 아리다. 눈 감고 받아들여 허름한 집일망정 함께 살았다면 지금은 웬만큼 큰 아이도 있었을 텐데. 돌아서 가던 사람의 뒷모습이 왜 이리 지금까지 아련한가?

> 도와주진 못할망정
> 마음에 대못을
> 박진 말라고 했으니
> 그저 소주잔을
> 부딪치는 수밖엔 …

소주 한 병 비우고 집으로 들어가는 길이 나쁘진 않지만 꼭 들어가야 해서 들어가는 집도 아니니 발걸음을 빨리 할 이유가 없다. 누군가의 집에서 부른다면 언제라도 선뜻 찾아가 하룻밤 술을 마시며 지새는 것이 그나마 재밌는 일이다. 근데 마시다보면 정신이 아롱아롱, 길옆 계곡에 굴러 떨어져 병원에 실려간 적도 여러 번이다. 한 번은 계곡의 뾰족돌 위로 떨어져 다리뼈가 부러져 쇠토막을 박았다.

먹을 채소나 텃밭에서 기르는 삶이고보니 다리병신이 됐다한들 무엇이 어쨌다는 것이냐. 정부에서 나오는 십 몇 만 원 가지고 어머니와 살아도 살아지긴 살아졌다. 다리를 제대로 못쓰니 장애자 판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 없겠냐며 찾아왔을 때, 함께 소주잔을 기울이며 나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런 생각은 아예 하질 말라고 말하고 싶었으나, 도와주진 못할망정 마음에 대못을 박진 말라고 했으니 그저 소주잔을 부딪치는 수밖엔.

내가 이곳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땐 2,30분이 걸리는 버스를 타고 찾아와 집을 고치는 내 옆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며 밤에 잠을 자지도 못하게 했다. 깡마른 작은 몸이어서 홧김에 번쩍 들어 마당가 모래더미 위에 내던지며 '잠을 자겐 해줘야 할 거 아니냐' 고 고함을 질렀더니, 멀끔히 바라보다 일어나 앉아 살아온 지난날들을 자근자근 얘기했다. 배우지도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뭘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다. 하루하루가 흐르는 걸 멈춰 세우지 못해 나이만 먹은 세월 앞에서 호수는 이제 이름 그대로 잔잔한 물결이라도 될 것인가? 옥동의 식당에 함께 나가 짜장면을 시켜서, 먹으라고 하니 웬일로 꾸역꾸역 잘도 먹는다. 이제껏 무엇 하나 홀홀 먹는 모습을 보지 못했었다. 짜장면 집을 나오는 즉시 나를 앞질러 걸어가 통닭집에 들러 닭을 시키고선 먹지도 않은 닭값을 서둘러 먼저 낸다. 어디서 돈이 좀 난 모양이다. 뻔한 생활 속에서도 어쩌다 여윳돈이 몇 만 원이라도 생기면 술값 음식값을 먼저 내고야 만다.

그나저나 다행이다. 오늘은 맥주 한 모금에 닭고기 한 점, 또 맥주 한 모금에 닭고기 한 점. 술만 먹던 호수가 드디어 안주를 먹기 시작했다. 불현듯 가을이 왔다.

■유승도 (시인)

희담석 건강용품 사은대잔치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염주세트

32,300원(염주, 염주 주머니)
· 사은품 : 희담석합장주 (낱개) 1만원
· 크기 : 직경 10mm
희담석 108염주 출시기념! 희담석 합장주 증정!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등)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희담석(稀潭石,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당신의 운을 열고 발복(發福) 시키는 천도 도자기 출현?

운(運)이 나쁜사람 공통점?
" 조상이 저승에서 안착을 하지 못하는 경우 "
" 이승에서 자손들도 정리정돈이 안되며 발복이 안되는 것이니라"

운(運)이 좋은 사람 공통점?
조상의 영혼과 자손의 관계가 좋아 평소 천상계의 기운이 잘 안착이 된 사람이성공 하는 것입니다.

현대과학 에서 보면 조상령, 태아령, 빙의 등 사고를 부르고, 병을 부르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해도, 해도 해도 안 되는 사람 이 있습니다. 과학에서 보면 다 나쁜 기(氣), 파장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상의 뼈를 좋은 곳에 묻고, 영혼을 천도하는 것은 이러한 나쁜 파장을 상세 시키고 발복 시키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현대과학이 개발한 치우천왕 도자기는 영계에 좋은 기를 보내주기 때문에 조상 영혼이 천도 되며, 입시를 앞둔 수험생 자녀 에게는 유전자 공명(共鳴)을 이용하여 조상과 후손이 공명되어 천상계의 좋은 기운을 학생이 공수 받아, 수험생은 집중력. 기억력. 논리력이 매우 높아지는 알파파가 매우 많이 형성되어 시험 합격의 기초가 됩니다. 또한 도자기의 파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 자신의 감정을 증폭 시키는 파동으로 사업자는 귀인을 만나며, 혼자 사는 사람은 인연의 짝을 만나게 되는 신령함은 같은 주파수의 핸드폰이 서로 소통되는 것같이 치우 도자기의 공명이 상대방 마음에 파동쳐 일어난 사례입니다. 항상 자신의 몸속에 들어있는 나쁜 영 (병귀, 태아령) 영가의 장애로 가족 간에 상극을 받으며, 흉몽을 꾸고, **이유없이 몸이 피곤하고 무거워서 생활에 불편을 느끼던 사람 들이 도자기를 처소에 두고서 부터 영적인 장애가 풀리고 몸이 많이 회복되는 기적적 운이 상생 되고 있습니다.**



운이 새고 돈의 흐름이 막히여 현실적으로 장사나, 매매가 어려운 터가 치우 도자기로 통기를 시켜준 후 도깨비터로 운기가 발복되는 놀라움은 이제 치우 도자기가 건강뿐만 아니라 액을 막아 주고 이상하게 행운도 가져다 준다하여 영험 도자기로 화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치우천왕 도자기는 지금껏 비밀리에 조상님 산소에 묻어주는 비방법으로 고가에 거래 되어 왔었던 것 입니다. 사실은 이런 좋은 도자기를 가장 잘 쓰는 방법은 도자기 안에 **고인(故人)의 이름을 적고, 사진이 있으면 영정사진,** 기원하고 싶은 가족사진이나 가족의 이름 다 써서 넣어 두시는 것 입니다.
이제 현대과학이 해결하는 영혼천도 도자기를 공개하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치우천왕 검색

◆ 무료사은품 : " 기도의 비밀 " 책자 + 치우천왕 CD + 치우천왕 적령부 카드 2장
내마음의 절에서는 현대과학이 개발한 기(氣), 측정 장비를 가지고 여러분의 운을 측정 해드리고 있습니다.

" 치우천왕 氣가 나오는 도자기 " 대박상품!! 가격 : 49만원 투자자 및 지방 대리점 문의

■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 ■ 입금계좌 : 농협 351-0242-7965-13 (예금주 : 내마음의 절) ■ 전화 : 1661-2575